

# 소외계층 권리구제 추진·어르신 사회활동 확대

부안군(군수 권의현)은 2021년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복지예산 액 923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총 1006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자해 복지위기기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도 도모하고 편안한 안정적인 후보장 등을 위해 군민이 행복한 부안형 맞춤복지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지, 질병, 폐업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구 976세대에 생계비 등 긴급지원비 5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코로나19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산 및 금융자금 기준을 완화하고 7억 500만원을 투자해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최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모든 연금 수급자 확대

코로나19 감염병·식중독 예방

위해우려식품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사회복지과 김미옥 과장은 지속되는 복지사 각지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제3기 읍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2명, 2021년 제2기 마을회장지기 95명 등으로 확대 위촉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선 팀장은 지난해 미을회장지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532기구 725명의 위기기구를 발굴했다. 이후 공공 및 민간지원 서비스 510건 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미을회장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마을 내 소외계층이 없도록 위기 기구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해 군민이 행복한 희망복지에 힘을 다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올해부터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대상자를 5년 이상 근무자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이에 빛맞춰 김구민 팀장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 실시로 193건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훈수결정을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3세대 519명이 계속 보호를 결정했으며 올해에는 기초 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미영 팀장이 담당하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